



미 증시, 엉갈린 실적 결과 속 테크주 강세 등으로 상승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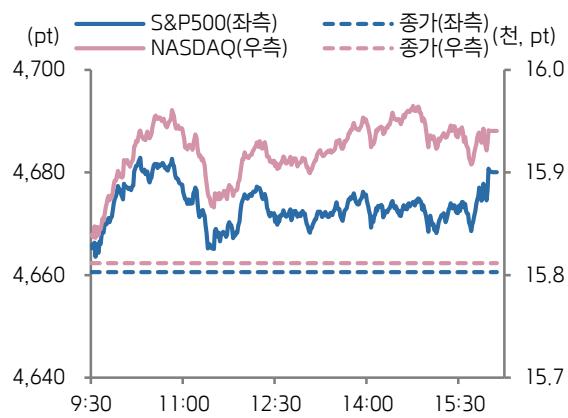
4일 (목) 미국 증시는 연준 정책 변화를 둘러싼 안도감이 지속된 가운데, 주간실업지표 호조, 퀄컴(+12.7%) 등 주요 테크기업들의 호실적 소식 등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. 다만, 다우 지수는 장기물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(-1.3%) 섹터 약세, 모더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소폭 하락 마감. 한편 이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던 BOE 통화정책회의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(다우 -0.09%, S&P500 +0.42%, 나스닥 +0.81%, 러셀 2000 -0.08%).

업종별로 IT(+1.5%), 경기소비재(+1.5%), 산업재(+0.4%) 등이 상승한 반면, 금융(-1.3%), 부동산(-1.1%), 헬스케어(-0.8%) 등은 하락.

S&P500 지수는 장 초반 지표와 퀄컴(+12.7%) 실적 호조 영향으로 상승 출발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.9 만명으로 5 주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고, 퀄컴은 반도체 부족 현상에 불구하고 스마트폰 칩 매출 호조세(YoY +56%)에 힘입어 매출 93 억 달러(예상 88.6 억 달러), EPS 2.55 달러(예상 2.26 달러)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. 퀄컴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엔비디아(+12.0%), AMD(+5.2%) 등 반도체 지수(+3.5%) 전체 상승 견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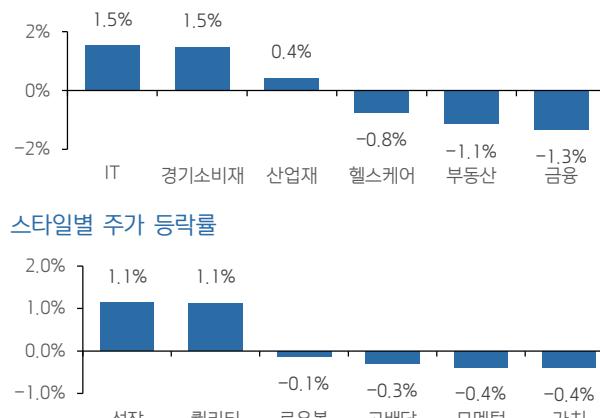
하지만 모더나(-17.9%)는 매출 49.7 억 달러(예상 62.1 억 달러), EPS 7.70 달러(예상 9.05 달러)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. 생산 차질로 연간 백신 판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점도 주가 하락 요인(기준 200 억 달러에서 150~180 억 달러). 로쿠(-7.7%)도 실적 부진 소식에 급락(매출 6.8 억 달러 vs 예상 6.83 억 달러).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향후 제품 가격, 재고, 그리고 광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	
주식시장	지수	가격	외환시장			
			변화	지수	가격	
S&P500		4,680.06	+0.42%	USD/KRW	1,182.52	+0.08%
NASDAQ		15,940.31	+0.81%	달러 지수	94.34	+0.5%
다우		36,124.23	-0.09%	EUR/USD	1.16	+0.0%
VIX		15.44	+2.25%	USD/CNH	6.40	+0.0%
러셀 2000		2,402.43	-0.08%	USD/JPY	113.75	-0.01%
필라. 반도체		3,715.76	+3.5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	16,733.13	-0.76%	국고채 3년	2.017	-2bp
유럽, ETFs				국고채 10년	2.415	-6bp
Eurostoxx50		4,333.34	+0.55%	미국 국채 2년	0.424	-4.2bp
MSCI 전세계 지수		752.89	+0.45%	미국 국채 10년	1.526	-7.7bp
MSCI DM 지수		3,212.35	+0.52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	1,262.46	-0.12%	WTI	78.81	-2.54%
MSCI 한국 ETF		79.57	+0.09%	금	1793.5	+1.68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09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23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7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87.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에 따른 국내 관련 업종들의 긍정적인 주가 변화
- 개별 실적 및 수급 악재로 큰 폭 조정을 받았던 게임주들의 주가 변동성
- 원자재 가격 하락, 금리 하락에 따른 국내 시클리컬 업종들의 투자심리 위축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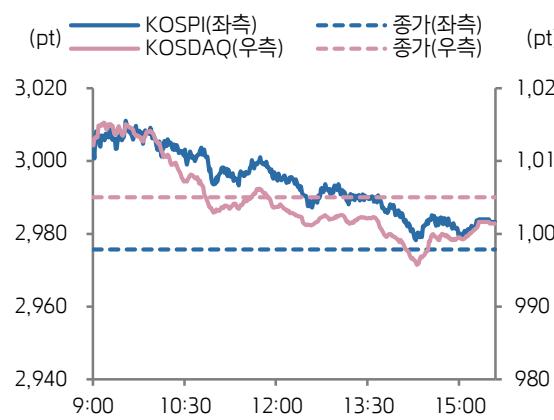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 11 월 FOMC 당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비슷하게, 4 일 BOE 총재 역시 현재의 고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화를 유발할 만큼 지속성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.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이 현재의 인플레이션보다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변화가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. 실제 물류 및 운송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해소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으나, 유가, 곡물, 해상 운임 등 원자재 시장은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,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스탠스 강화에 대한 시장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것으로 전망.

이처럼 1) 연준의 예상보다 점진적인 통화정책 스탠스, 2) 월컴, 엔비디아 등 테크 및 성장주들의 호실적 기대감, 3) 주간신규실업지표 호조(26.9 만, 27.5 만)를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 전망 등 현재 미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인 상황.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 증시의 연이은 신고가 랠리를 연출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, 투자자 센티먼트 상 증시가 과열된 측면이 있는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음.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감 누적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등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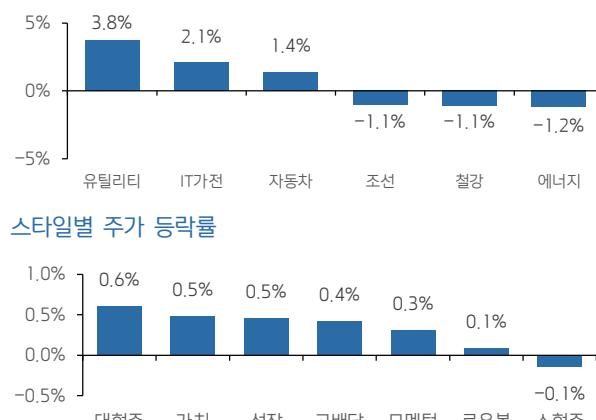
전거래일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에도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 업종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 최근 반도체 등 IT 업종의 주가 바닥 인식 기대감이 상존한 가운데,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대감, 월컴의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 등으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(+3.5%)가 급등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관련 업종 및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주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. 반면, 메타버스, NFT 테마로 잇따른 급등세를 보였던 게임, 엔터 관련주들의 경우, 전거래일과 유사하게 차익실현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주가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